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쌍둥이 양상과 의미 고찰*

이은경**

<차 례>

1. 서론
2.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쌍둥이의 양상
3. 국문장편소설에 내재한 쌍둥이의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문장편소설에 다수 등장하는 ‘쌍둥이’의 다양한 양상을 분류하고 그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국문장편소설에 내재한 사대부층의 쌍둥이에 대한 인식을 찾고자 한다. 현재 대중문화에도 많이 소환되는 쌍둥이를 사대부층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국문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쌍둥이가 많은 인물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양상을 쌍둥이의 측면과 가문의 측면으로 나누었다. 쌍둥이의 측면에서는 첫째, 대립·갈등형 쌍둥이로, 쌍둥이 사이 혹은 쌍둥이로 인한 다른 형제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둘째, 협력·상보형 쌍둥이로, 서로 힘을 더하여 외적이거나 국가, 가문을 지키거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경우이다. 셋째, 독립·개체형 쌍둥이로, 외모와 성격이 다르거나 자라온 환경이 다르으로써 개별적 삶을 살게 되는 경우이다. 서로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헤어짐으로 인해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가문의 측면에서는 첫째, 계후·지속형 쌍둥이로 가문 내 계후로 입적한 쌍둥이로 계후 문제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여 가문을 이어가는 경우이다. 둘째, 치유·회복형 쌍둥이로, 쌍둥이가 가족의 빈 자리를 회복함으로써 아픔과 트라우마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2022S1A5B5A17048999)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충북대학교 교양교육본부 강사

우미를 치유하는 경우이다.

사대부를 주 독자층으로 갖고 있는 국문장편소설에서 쌍둥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국문장편소설에서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한 같음의 상징이면서 각기 다른 사고와 자질을 지닌 독립체로서 다름을 인지하고 있다. 즉, 쌍둥이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국문장편소설에서 많은 쌍둥이를 통해 가문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번영을 향한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분열과 불안한 심리는 쌍둥이의 단합과 조화의 모습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셋째, 국문장편소설의 쌍둥이는 시간상 큰 차이가 없는 쌍둥이를 통해 가부장제라는 수직적 질서를 공고히 하려 한다. 즉, 같은 날 간만의 차이로 태어나 형이 되고 아우가 되어 가문에서의 위치가 확연히 달라지는 서사를 통해 시간 차를 둔 형제보다 유교적 질서를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주제어 쌍둥이, 한낱한시, 같음과 다름, 국문장편소설, 수평적 형제 관계, 수직적 질서, 가문 번성

1. 서론

본 연구는 국문장편소설에 다수 등장하는 ‘쌍둥이’의 다양한 양상을 분류하고 그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사대부층이 사대부층 쌍둥이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의식을 찾고자 한다. 우리 민속 문화에는 “쌍밤이나 뿌리가 두 갈래인 무를 먹으면 쌍둥이를 낳는다.”는 기장 지방의 금기 속신¹⁾이 있을 정도로 쌍둥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국문장편소설에서는 다양한 면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1) 김승찬, 「기장지방의 금기 속신」, 『한국민족문화』 8, 부산대학교 한국민속문화연구소, 1996, 396쪽.

‘쌍둥이(twins)’는 한 어머니에게서 한꺼번에 태어난 두 아이 즉, 한 모체에서 한 번의 분만으로 두 개체로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쌍둥이는 태어나기 전까지 어머니의 자궁을 공유하는 독특한 경험을 지닌 형제 관계이자 또래 관계이다. 그러므로 외모, 능력, 성격, 품행 등 다양한 면에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로에게 질투심을 보이며 경쟁하거나, 협동하여 조화롭게 생활할 수도 있으며, 서로 지나치게 애착 관계를 형성하거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쌍둥이 간에 의존-지배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²⁾ 그래서 서인지 외형적 ‘같음’과 개체적 ‘다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쌍둥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학적 소재로 차용되었다.³⁾

쌍둥이에 대한 관심은 고소설보다는 설화 관련 작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무속신화 속에 나타난 쌍둥이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⁴⁾ 신화 속에서는 쌍둥이가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성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⁵⁾ 그러나 쌍둥이는 대체적으로 대립과 갈등, 창조와 파괴 그리고 선과 악의 이원론적 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전설과 민담까지 아울러 본다면 우리 설화 속 쌍둥이에 대한 인식은 신성과 기괴라는 이중적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점차 신성이

2) 최혜원, 「성인 쌍둥이의 성장과정에서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동서정신과학』 21-1, 한국동서정신과학회, 2018, 18쪽.

3) 장혜영, 「희곡 작품들 속에 나타나는 쌍둥이 이야기의 여러 가지 변용」, 『불어불문학연구』 50, 한국불어불문학회, 2002, 440쪽.

4) 이수자, 「제주도 큰근대의 신화에 나타난 가조구성상의 특징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 김영일, 「한국창세신화의 비교-〈천지왕본풀이〉와 북미 인디언의 ‘쌍둥이’ 영웅신화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10,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김영일, 「‘제석본풀이’와 나바호의 ‘쌍둥이’ 영웅담」, 『한국무속과 신화의 연구』, 세종출판사, 2005; 박종성, 「구비전승 <삼태성>과 <북두칠성>신화 일고-무속신화와 건국신화의 상관성 및 신앙의 양상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회, 2003; 권복순,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의 인물의 기능과 그 의미」, 『어문학』 116, 한국어문학회, 2012.

5) 이수자(2001), 위의 논문, 231~256쪽.

기피와 경제성에 맞물리면서 기아(棄兒)선택으로 바뀌었고, 쌍둥이에 대한 금기가 해소되면서 기원의 대상으로 인식이 변화되었다.⁶⁾ 즉,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민중들에게 쌍둥이는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하는 존재였기에 남녀 쌍둥이의 경우라면 기아선택은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후손이 없는 집이나 일손이 필요한 농촌에서는 쌍둥이가 태어나면 반가운 일ಿಗೆ 기원이나 소망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쌍둥이에 대한 설화 연구에 비해 국문장편소설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쌍둥이 자매의 갈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최수현의 연구⁷⁾가 눈에 띄며 형제간의 갈등과 의미를 찾고자 한 강우규의 연구⁸⁾도 있지만 대체로 친동기(親同氣) 간의 선악 구도⁹⁾로 보는 등 이분법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쌍둥이에 집중하지 않고 형제나 자매, 남매 등의 관계 속에 묻혀 친동기간의 관계로 함축시켜 논의되고 있다.¹⁰⁾ 쌍둥이 형제는

-
- 6) 김자현은 쌍둥이 관련 설화 46편을 대상으로 하나의 독립된 유형으로 설정하고 신이담, 기피담, 희화담, 발복담 등으로 하위 분류하였다.(김자현, 『쌍둥이설화 연구』, 『남도민속연구』 14, 남도민속학회, 2007.)
- 7) 최수현, 「〈명주기봉〉에 나타난 자매갈등의 형상과 그 의미」, 『어문연구』 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 8) 강우규는 삼대륙 소설 중 <유효공선행록>의 유연과 유흥 형제를 쌍둥이로 보고 있다.(강우규, 「〈유효공선행록〉 쌍둥이 형제갈등의 양상과 의미 고찰」, 『우리문학연구』 64, 우리문학회, 2019.) 그러나 규장각본 권 10에 죽은 어머니 경씨에 대한 유정경의 대화 부분에 “나는 생각하나 흥은 더욱 어려시니 엇지 알미 이시리오”라는 대목에서 나이 차가 있는 형제임을 알 수 있다. 권1, 권9에는 두 형제의 외모가 비슷하여 알아보기 힘든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유효공선행록> 권1, 정관이 유시랑을 찾아와 유연과 정혼을 청하러 왔다가 유흥을 유연으로 착각하게 된다. 또한 유흥을 자세히 살핀 후에야 유흥이 유연의 온중정대합에 미치지 못함을 느끼고 각기 다른 형제임을 알게 될 정도로 닮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유연, 유흥 형제가 쌍둥이임을 확실히 확인되지 않기에 연구 대상 작품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 9) 이지하, 「대하소설 속 친동기 간 선악 구도와 그 의미」, 『한국문화』 64,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 10) 배수현, 「〈유선쌍학록〉의 갈등양상과 인물형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유선쌍학록>의 경우 쌍둥이 형제, 특히 서자(庶子)라는 신분적 특성을 가진 쌍둥

차치하고 동기간의 관점도 주로 갈등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¹¹⁾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에서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간에 적대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¹²⁾ 그러나 쌍둥이 형제를 갈등 관계로만 볼 경우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 <현몽쌍룡기>의 조무·조성 형제, <명주보월빙>의 윤광천·윤희천 형제, <윤하정삼문취록>의 하몽성·하몽린 형제, <성현공숙령기>의 임희린·임세린 형제, <유선쌍학록>의 소화인·소학선 등은 쌍둥이 형제간 갈등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쌍둥이로서 갖는 의미를 규명하기 어렵다. 갈등이 없는 쌍둥이 형제를 단순히 복수주인공의 확장 혹은 장편화의 수단으로 처리¹³⁾하기에는 각각의 특징이 상이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조선왕조실록의 경우를 보더라도 태종~고종 때까지 꾸준히 쌍둥이에

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쌍둥이로 설정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 11) 고소설 전반에 나타난 형제 갈등 연구(차용주, 「고소설의 갈등양상에 대한 고찰-형제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3; 조훈호, 「고소설에 나타난 형제간의 갈등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 18, 국어교육학회, 1986), 국문장편소설 부분은 <창선감의록>, <유효공선행록>, <명주기봉>, <현몽쌍룡기>, <명주보월빙>에 대한 형제 갈등 연구(조광국, 「<창선감의록>의 적장자 콤플렉스」, 『고전문학과 교육』 38, 한국고전문학회, 2018; 양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전통적 가족윤리의 제 문제」,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조혜란, 「악행의 서사화 방식과 진지성의 문제-〈현몽쌍룡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유인선, 「〈명주보월빙〉연작의 친동기간 갈등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문학』 60, 한국고전문학회, 2021)가 있다.
- 12) 광정식, 「한국 설화에 나타난 형제간 갈등의 양상과 그 의미」, 『문화전통논집』 4,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6.
- 13) 이현주는 <완월희맹연>에 등장하는 쌍둥이를 ‘인물 관계의 확대의 방법’이라고 보았고, 김은일은 <명주보월빙>의 윤광천·윤희천 쌍둥이를 분할형 짝캐릭터로 보고 캐릭터를 통한 국문장편소설의 서사 확장이라고 보았다. 주로 쌍둥이를 서사의 확장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현주, 「<완월희맹연>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34쪽; 김은일, 「국문장편소설의 서사 확장 원리의 한 면모-〈명주보월빙〉연작의 캐릭터 설정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95, 민족어문학회, 2022, 230~231쪽.)

대한 기록이 약 45건 정도 나타나고 있다.¹⁴⁾ 주로 세쌍둥이, 남녀쌍둥이 등이었으며 노비에서 사대부까지 그 계층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인 문집이나 기타 자료¹⁵⁾에도 쌍둥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쌍둥이는 이야기의 소재로 가치가 있었음에는 분명하다. 흔하지 않지만 계속되어 회자되었기 때문에 독자의 관심을 끌기 좋은 쌍둥이 이야기를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쌍둥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형제, 남매, 자매 쌍둥이를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성별(性別)적 차이점은 있으나 본고는 쌍둥이 연구의 시론적 차원이기에 모두 포함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¹⁶⁾ 또한 <유선쌍황록>에서는 서자(庶子)가 쌍둥이로 등장한다. 신분적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쌍둥이 형제로 포함하고자 한다.¹⁷⁾

쌍둥이는 친동기간의 관계이지만 시간 차를 갖는 수직적 형제가 아닌 같은 시간에 태어난 수평적 형제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동복의 친동기간이지만 거의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두 형제¹⁸⁾가 겪는 삶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같은 외모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두 형제가 표면적으로는 선인과 악인이라는 대칭적 관계로, 군자와 영웅이라는 다른

14)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쌍둥이 관련 자료는 태종(1건), 세종(6건), 단종(1건), 세조(1건), 명조(3건), 선조(1건), 광해군(2건), 인조(2건), 효종(3건), 현종(10건), 숙종(4건), 경종(1건), 영조(6건), 고종(1건) 등으로 조선 전반에 걸쳐 기록되고 있다.(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15) 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를 참고.

16) ‘오늘이 험겨투기’ 설화처럼 고전 서사에는 남매 쌍둥이의 갈등, 여아 배제가 많지만 국문장편소설의 남매 쌍둥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남매 쌍둥이를 따로 구별하지는 않았다.

17) 쌍둥이 형제, 남매, 자매의 개별적 특징은 물론 적서에 따른 신분적 문제는 차후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18) 본고에서 사용되는 쌍둥이 형제는 자매, 남매 관계를 포함한 용어이다.

면모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쌍둥이 형제는 사건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일어난 사건에 대응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평적 형제이기에 갖는 의미는 수직적 형제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이에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쌍둥이 형제가 갖는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당시 사대부층의 사고를 알아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2.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쌍둥이의 양상

쌍둥이에 대한 문헌¹⁹⁾을 보면 상층부의 권력자들은 쌍둥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중의 수는 그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²⁰⁾ 반면 민중의 경우에는 쌍둥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상층부의 관점과는 반대로 무거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설화나 문헌에 나타난 쌍둥이에 대한 상층부의 인식은 민중을 바라보는 관점일 뿐 상층부의 형제, 자손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17쌍 이상의 쌍둥이 형제가 등장하는 <명주보월빙> 연작을 보면 사대부층의 쌍둥이에 대한 인식을 잘 담아내고 있다. 이에 개별 작품에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쌍둥이의 양상과 인식을 넘어 다양한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사대부층의 쌍둥이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작품과 쌍둥이는 다음과 같다.

19) 『삼국사기』 9권, 『조선왕조실록』 45권, 『고려사절요』 1권 등

20) 김자현(2007), 앞의 논문, 130쪽.

작품	쌍둥이	성별 관계	서사 비중
명주기봉	사마영주와 사마예주	자매	주요인물
명주보월빙	윤광천, 윤희천	형제	주요인물
	이수빙, 이연빙	자매	주요인물
	하원상, 하원창	형제	주요 인물
성현공숙렬기	임희린, 임세린 ²¹⁾	형제	주요인물
쌍성봉효록	임성인, 임성현	형제	주요인물
	정계임, 정세희 ²²⁾	남매	비중있음
	천주공주, 천강공주	자매	
엄씨효문청행록	엄효정, 엄효임	남매	
완월회맹언	정인중, 정인용	형제	주요인물
	정혜주와 정몽천	남매	
	정몽연과 정몽냥	형제	
	두성경과 두현경	형제	
	주광수와 주광유	형제	
	주광여와 주성혜	남매	
	대화부인과 소화부인	자매	
유선쌍학록	정인용의 쌍둥이	형제	
	소학인과 소학천	형제	주요인물
유이양문록	하벽강과 하벽혜	자매	주요인물
	유세행과 유세운	형제	주요인물
윤하정삼문취록	최일벽과 최차벽	자매	주요인물
	하몽성과 하몽린	형제	주요인물
	엄선혜와 엄월혜 ²³⁾	자매	주요인물
	하몽관과 하몽수	형제	
	정옥기와 정완기	형제	
	화금벽과 화은벽	자매	
	화천도와 화화도	자매	
	윤춘린과 윤숙린	형제	
	윤성현과 윤명현	형제	
	문홍란과 문옥란	자매	
정진기와 정세기	형제		
하몽표와 하월강	남매		

	윤영린과 두씨의 쌍둥이	형제	이름없음
	석준과 윤경아의 쌍둥이	남매	이름없음
임씨삼대록	임창홍과 설성염의 쌍둥이	형제	
	남환옥과 남영설	남매	진왕의 잃어버린 아이들로 비중 있음
현몽쌍룡기	조무와 조성	형제	주요 인물
	조계현과 조월염	남매	

이상의 작품들은 쌍둥이가 전체 서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중요한 인물군이 아닌 쌍둥이라 해도 많은 수가 등장한다면 그 나름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명주보월빙> 연작의 경우에는 17쌍의 쌍둥이가 등장하고 있으며 <완월회맹연>의 경우에도 8쌍의 쌍둥이가 등장하고 있다. 단순히 서사 확장의 수단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쌍둥이가 많은 인물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쌍둥이 측면과 가문의 측면으로 나누어 유형을 분류하였다.

쌍둥이 간 혹은 쌍둥이와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립·갈등형 쌍둥이이다. 쌍둥이 중 한 명이 다른 형제를 시샘하여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갈등 서사를 확장해 나가거나 쌍둥이와 다른 형제 간 또는 주변 인물과의 갈등으로 위기를 초래하는 유형이다. 전자로는 <명

21) 임희린과 임세린 형제는 <성현공숙렬기>와 <임씨삼대록>에 연이어 등장하는 인물이다. 본고의 쌍둥이 인물 표에서는 쌍둥이 형제로서 함께 성장하는 <성현공숙렬기>로만 정리하였다.

22) 정계임과 정세희 남매는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에 연이어 등장하는 인물이다. 본고의 쌍둥이 인물 표에서는 서사가 많은 <쌍성봉효록>으로만 정리하였다.

23) 엄월혜와 엄선혜 자매 쌍둥이의 경우는 <윤하정삼문취록>과 <엄씨효문청행록>에 공동으로 나온다. 본고의 쌍둥이 인물 표에서는 서사적 비중이 많은 <윤하정삼문취록>으로만 정리하였다.

주기봉>의 사마영주와 사마예주 자매, <완월회맹연>의 정인중과 정인용 형제가, 후자로는 <유선쌍학록>의 소학인·소학선 형제와 <임씨삼대록>의 진왕의 쌍둥이 남매가 대표적이다. 형제 갈등은 국문장편소설은 물론 고소설 전반에 나타나는 모티프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복이든 동복이든 형제는 나이 차에 따른 상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반면 쌍둥이의 경우는 같은 시간, 같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음에도 다른 능력, 다른 성품, 차별적 애정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갈등이기에 차이가 있다.

<명주기봉>의 사마영주와 사마예주는 외모가 거의 같은 쌍둥이 자매이다.²⁴⁾ 언니 사마영주는 성도간협하고 동생 사마예주는 청빙한 태도를 지닌 요조숙녀로 각기 다른 성품을 지녔다. 사마영주는 사마예주를 시기하여 동생의 정혼자인 현웅린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된다. 아버지 사마양은 사마영주가 요조숙녀가 아닌 것을 알고 정숙한 사마예주에게 마음이 기운다. 사마영주의 시샘은 사마예주를 고난에 빠뜨리는 서사를 만들어 나간다. 특히 쌍둥이 자매가 한 명의 남편(현웅린)과 부부의 연을 이어가면서 자매갈등이 부부갈등, 처첩갈등으로 확대된다.

동기간의 자매보다 외모가 거의 똑같은 쌍둥이 자매로 설정함으로써 자매 갈등에 복잡한 사건을 생략할 수 있다. <윤하정삼문취록>의 소봉란의 육촌 여혜정이 윤성린과 갖는 삼각관계나 임몽옥이 사촌 주애랑과 하원상과 갖는 삼각관계와 <명주기봉>의 삼각관계는 차별성을 갖는다. 여혜정은 윤성린을 피기 위해 남장을 하고 윤성린을 술에 취하게 하는 등의 사건을 만들어야 한다. 주애랑은 하원상을 차지하기 위해 외조모 목씨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한다. 반면 사마영주는 외모가 같음을 이용하여 현웅린에게 다가가기 용이하다. 즉 쌍둥이로 설정함으로써

24) <명주기봉> 권1, 사마영주와 사마예주의 외모가 같다는 직접적인 설명은 없으나 현웅린이 사마영주를 사마예주로 착각하여 음녀로 오해하게 된 것으로 보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외모가 닮은 듯하다.

외모를 바꾸는 요약을 사용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유발하지 않아도 된다. 쌍둥이 자매 갈등은 남성 인물과의 만남 부분을 간단히 하고 그로 인한 여성 인물의 내적 갈등에 집중하게 한다.

<완월회맹연>의 정인중은 정인웅과 쌍둥이 형제로 다양한 갈등을 유발시키며 서사를 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이다. 정인중은 적통자로 태어났으나 이미 계후로 들어온 사촌 정인성이 과양되지 않음으로써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²⁵⁾ <성현공숙렬기>의 임희린이나 <완월회맹연>의 정인성의 경우 백부에게 입적된 뒤 재취한 백모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지만 둘 다 과양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²⁶⁾ <성현공숙렬기>의 임희린과 임세린 쌍둥이 형제에게는 갈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완월회맹연>의 정인중과 정인웅 사이에는 갈등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쌍둥이와 이복형제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유선쌍학록>도 갈등 서사의 중심축을 이룬다. <유선쌍학록>의 소학인과 소학선 형제는 소수찬의 첩 위늬년의 소생으로 쌍둥이 간의 갈등은 없지만 정실부인 엄씨와 그 소생인 소용준, 소구준 형제의 시샘을 받음으로써 갈등이 발생한다.²⁷⁾ 특히 집안의 장남이며 적자인 소용준의 경우 모든 면에서 월등하면서도 서자인, 신분적으로 낮은 쌍둥이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더욱 심하게 된다. 정실부인

25) 정인웅의 탕자로서의 행보는 탁원정(「가문 내 ‘불우한 탕자’의 계보와 그 변주」, 『고전문학연구』 54, 한국고전문학회, 2018)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26) <성현공숙렬기>에서는 임한주가 여부인과 재혼하면서 임유린을 낳지만 임한주의 고집으로 임희린을 장자로 둔다. 그로 인해 임한주와 여부인 간의 부부 갈등, 여부인과 임희린 간의 모자 갈등, 임희린과 임유린 간의 형제 갈등이 조래된다. <완월회맹연>의 정삼의 경우에도 정인성을 계후로 입적한 후 소교원과 재혼하여 정인중과 정인웅 쌍둥이 아들을 얻었음에도 과양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성현공숙렬기>와 같은 갈등 양상을 모두 겪게 됨은 물론 쌍둥이로 인해 갈등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27) 박영희, 「<유선쌍학록>연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회연구회, 1992; 손기광, 「<유선쌍학록>의 이중성과 사회의식」,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0; 배수현 (2004), 앞의 논문. 박영희와 손기광은 <유선쌍학록>의 형제 갈등을 계후 문제라고 보았고, 배수현은 모계갈등에서 이어진 이복형제간의 갈등으로 보았다.

엄씨와 적자 소용준에게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쌍둥이는 더욱 위협적이고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임씨삼대록>의 남환옥과 남영설은 진왕의 잃어버린 쌍둥이 남매로 쌍둥이 인물 중 악인에 해당한다. 쌍둥이 남매는 각각 소염란과 임재흥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자신의 뜻을 들어주는 양부모 남태우 부부를 선택한다. 남영설은 꺾교란을 피어 임재흥과 혼인하지만 부부갈등을 초래한다. 또한 소염란을 모해하고 성소저를 납치하여 쌍둥이 오빠 남환옥과 연결하려는 등 쌍둥이 남매간의 갈등은 없으나 주변 인물들과 갈등을 유발한다.

최수현은 <명주기봉>의 쌍둥이 자매 설정을 ‘가문 안에서 갖는 위치를 역학적으로 보여주기에 좋다’고 언급한 바 있다.²⁸⁾ 국문장편소설의 쌍둥이 형제(자매)간 갈등 또는 쌍둥이 형제로 인해 파생된 갈등 구조나 내용이 다른 형제간 혹은 자매간 갈등과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의 원인이나 강도(剛度)는 더욱 강하다고 하겠다.

둘째, 협력·상보형 쌍둥이이다. 쌍둥이 형제가 힘을 합쳐 외적(간인)을 물리치거나 가문을 지켜내는 경우이다. 주로 형제간에 우애가 깊고 형제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며 난형난제에 해당한다. <현몽쌍룡기>의 조무와 조성 형제, <명주보월빙>의 윤광천과 윤희천 형제, <유선쌍학록>의 소학인과 소학선 형제, <쌍성봉효록>의 임성인과 임성현 형제, <성현공숙령기>의 임희린과 임세린 형제, <엄씨효문청행록>의 엄봉효와 엄효임 남매를 들 수 있다.

<현몽쌍룡기>의 조무와 조성은 조숙의 쌍둥이 아들로 두 마리의 용이 따리를 틀고 머리를 낮추어 위씨 부인의 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갖고 태어났다. 두 아이가 태어날 때의 모습은 ‘골격이 비상하였고 용의 눈썹과 봉황의 눈을 가졌으며 달 같은 이마와 붉은 입술을 가진 기린의 새끼이며

28) 최수현(2014), 앞의 논문, 215쪽.

호랑이의 품질'을 가지고 있었다.²⁹⁾ 외모 묘사로 보아 일란성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형 조무는 용호의 기운을 띠고 산악의 무거움과 엄한 위엄을 지닌 반면 동생 조성은 덕행과 기량이 성인과 같고 도학군자의 기틀을 가졌다. 조무와 조성은 난형난제로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만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달랐다.³⁰⁾

그러나 조무와 조성 형제는 갈등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박수관 일행에게 쫓겨 결국 강물에 빠진 정채임(조무의 정혼자)을 구하기도 하고, 동진과 서초에서 모반이 일어나자 조성파 조무가 출장하여 평정한다. 쌍둥이 형제는 같이 혹은 따로 가문과 국가를 지켜낸다.

<명주보월빙>의 윤광천과 윤희천 형제도 태어나면서 비범함을 갖춘 쌍둥이이다.³¹⁾ 그러나 윤광천은 영웅의 기상과 호걸지풍을 지닌 용호의 품격을 지닌³²⁾ 반면 윤희천은 온중정대한 성인군자형이다. 성향이 다른 두 형제지만 윤광천과 윤희천은 조모 위씨와 윤수의 처 유씨의 악행으로 가문이 위기에 처하자 한마음으로 이겨낸다. 조모 위씨가 윤광천 형제를 폐약한 죄로 소장을 내자 윤광천은 조모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 미친 척을 하고, 그 마음을 읽은 희천은 모든 죄를 자신에게 있다고 간한다. 형제는 유배를 가게 되지만 진심으로 조모에 대한 효를 행한다.³³⁾ 결국

29) <현몽쌍린기> 권1.

30) <현몽쌍린기> 권1. 용호(조무)은 손오양제나 제갈량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였으며 걸음마다 삼가고 공손하며 행실을 닦는 것을 답답하다고 여겼다. 반면 용창(조성)은 몸을 닦아 성인의 경전과 현인의 전의 이치를 알고 입금을 섬기며 백성을 다스리는 재주와 덕을 갖춘 후 입신양명하여 현명한 재상이 되는 삶을 추구하였다.

31) <명주보월빙> 권2.

32) <명주보월빙> 권13. 시년이 바야흐로 십삼 춘광을 당하니 신당이 언컨당숙하여 팔척 대당부의 테위를 일워시니 빗난 문당은 태사천의 디나고 아름다운 필법은 종왕을 묘시하고 우호로 턴문과 아티로 디리를 달통하며 녀력이 과인하여 구덩을 가바야이 너이니 발호호 기상은 태산을 넘월 듯 튕당호 괴운이 구덩을 밋들듯 빅년대이와 호비쥬순이며 일월 명목은 쥬슈의 브경호물 나모라니 긴 눈섭은 턴창을 쉼쳐시며 슈슈 〃 과슬하여 천고 영결이오 일세 군지라

쌍둥이 형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조모 위씨와 숙모 유씨를 감화시키고 봉괴되었던 가문을 일으킨다.³⁴⁾

<유선쌍학록>의 소학인과 소학선 형제는 ‘덕음과 효성을 겸비함은 물론 충명영혜하고 언사숙성하며 도량능활’한 인물이다.³⁵⁾ 소학인 형제에 대한 묘사는 마치 한 인물처럼 서술되고 있을 정도로 비슷하다. 정실부인 엄씨의 시샘으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효를 다하는 모습이나 난을 진압하는 장수의 모습 등도 유사하다. 다만 하벽강(소학인)과 하벽과(소학선) 쌍둥이 자매와 혼인한 소학인 형제가 누명을 쓴 쌍둥이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묘사될 뿐이다.³⁶⁾ 첩의 소생인 소학인 형제는 이복형제들의 어리석음으로 기울어져 가는 가문을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정실 엄씨는 물론 이복형제인 구용준과 구본준 형제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과 우애를 지켜나간다.

<쌍성봉효록>의 임성인과 임성현 형제는 작품 제목에 해당하는 중요 인물들이다. 임백영의 정실 유계화 소생의 쌍둥이로 뛰어난 기질을 가지며 협력하는 모습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능운니고의 요술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들통이 날 정도의 맑은 기운을 지닌 형제이며 액운을 피하기 위해 8세의 나이로 부친과 중군하기도 한다. 어린 소년이라고 무시한 장졸이 죽음에 임하게 되자 쌍성 형제가 치료해 주는 인성을 지니기도 했으며 기러기로 변해 달아나던 옥비낭낭을 화살로 쏘아 사로 잡기도 한다. 또한 죄수의 몸이 된 부친 임백영과 가문 회복을 위해 등문고를 울리고 혈서로 쓴 상소문을 올리기도 한다. 14살이 되자 쌍성 형제는 나라히 진왕의 쌍둥이

33) <명주보월빙> 권51.

34) <명주보월빙>의 윤부(府)의 위기는 이은경, 앞의 논문, 2021, 158~161쪽에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35) <유선쌍학록> 권1.

36) <유선쌍학록> 권7. 소학인은 하벽강의 만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명을 벗기는 데 반해 소학선은 하벽과의 누명을 벗기는데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딸인 천주와 천강 공주와 혼인한다. 과거에 응시했을 때도 실력을 가늠 수가 없어 둘 모두를 좌우 장원으로 삼는다. 이처럼 임성인, 임성현 쌍둥이 형제는 둘이며 하나가 되어 가문을 이끌어 나간다.

<성현공숙렬기>의 임희린과 임세린 형제 중 임희린이 백부(伯父)인 임한주의 계후로 가지만 같은 공간에서 성장한다. 임세린은 임희린과 우애가 돈독하며 서로의 부부 일까지도 깊이 있게 의논하며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³⁷⁾ 두 형제는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 임한주와 임한규의 뒤를 이어 두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 성장한다.

<엄씨효문청행록>의 엄봉효와 엄효임 남매는 세자 엄표의 쌍둥이 남매이다.³⁸⁾ 이들의 이름은 효도하는 손자라는 의미로 붙여졌다.³⁹⁾ 쌍둥이 남매의 아버지, 세자 표는 악행을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결국은 자살하게 된다. 숙부(叔父)인 엄창이 쌍둥이 남매를 자신의 자식처럼 대하여 이름을 봉문, 효옥으로 바꾸어 정성으로 돌본다. 엄봉문은 아버지 엄표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과거에도 응시하지 않는다. 엄백진과 엄창은 그들이 받은 녹봉을 모두 엄봉문 남매에게 주지만 엄봉문은 공검 절약하며 죄인의 자세로 살아간다. 엄봉문, 엄효옥 남매는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속죄의 삶을 살며 ‘엄씨의협적선당’을 설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호한다.

셋째, 독립·개체형 쌍둥이이다. 쌍둥이라 해도 각 개인은 개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체적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이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간다. <명주보월빙>의 이수빙과 이연빙 자매, <윤하정삼문취록>의 엄월혜와 엄선혜 자매, <쌍성봉효록>의 정계임과 정세희 남매를 들 수 있다.

37) <성현공숙렬기> 권5.

38) <윤하정삼문취록> 권98에는 엄효정과 엄효임으로 나온다.

39) <윤하정삼문취록>에는 며느리 효비의 삼종이 아이들에게 있음을 알아 ‘지극한 효’라는 뜻으로 지어주었다.

<명주보월빙>의 이수빙과 이연빙은 이춘의 쌍둥이 딸이다. 그러나 두 쌍둥이는 외모는 물론 성격도 완전히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⁴⁰⁾ 이수빙은 신장이 칠 척이나 되고 살결도 검은 추녀인 반면 이연빙은 천향이질이면 태기려하며 행동이 온유정정하고 눈 율기기가 아까운 여인이다. 이수빙은 정친홍과 혼인하고, 이연빙은 정인홍과 짝을 맺는다. 두 자매는 모두 정부(府)의 며느리가 되지만 서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밀접한 우애를 나누기보다 각자 닦친 상황을 살아가는 개별적 삶을 추구한다.

<윤하정삼문취록>, <엄씨효문청행록>의 엄월혜와 엄선혜 자매도 동오왕 엄백경의 쌍둥이 딸로 두 선녀의 꿈을 꾸고 태어났다. 같은 태몽을 꾸고 태어났지만 엄월혜는 관학(유모 오파의 남편)에 의해 쌍섬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었고, 엄선혜는 동오왕의 공주로 살아간다. 엄월혜는 화벽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도 모른 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 엄선혜는 진왕 윤광천의 장자 윤성린의 아내가 되어 순탄한 삶을 영위한다. 엄월혜는 윤창린의 겁탈로 쌍둥이를 낳았으나 경난아의 위협을 받는 위험한 삶을 살아간다. 엄월혜(화벽)와 엄선혜는 윤창린의 첩과 윤성린의 아내로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다만 엄선혜는 엄월혜를 볼 때마다 동오국의 친정어머니를 떠올리곤 한다. 피가 당기는 정도로 묘사되었을 뿐 두 자매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것이다.

<쌍성봉효록>의 정계임과 정세희는 정연경의 세 번째 부인 여미주 소생의 쌍둥이 남매이다. 정계임은 정연경이 배필로 맺어준 떠돌이 유현유를

40) <명주보월빙> 권12. 당녀 슈빙과 추녀 연빙은 쌍티오 년괴 십유삼의 성형이 가죽혀 여 유한명경하디 슈빙은 용피 의논홀 비 아니라 신당이 칠척을 다하고 거문 살이 외석긔고 가월턴정의 일월각이 셔고 놓흔 코와 거두든 특이오 좌우의 드리운 흑이 귀밧터 잇셔 바로 보기 어려오디 다만 일쌍 봉안의 영괴 당당하여〃 츄슈의 정괴를 먹음엇고 긴 눈섭은 턱창을 썬쳐시디 상활홀 격되 대당부이 틀이 이시니〃 흑시 그 위인을 강인하나 그 상모를 우민하더니.....츠 쇼저 년빙의 턱창이질이 빅티 괴려하여 눈 율기기〃 앓가온 티되오 녀형이 온유명명하여〃 만시 딘션딴미하니

무시하고 갈등을 유발한다. 그러나 정계임이 병이 나자 유현유의 극진한 간호를 받고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정세희는 서모 오씨의 먼 친척인 오서희와 혼인하나 못생긴 외모 때문에 박대한다. 정계임과 정세희는 남매는 갈등 관계도 아니며 협력 관계도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개별적 삶을 영위하는 모습으로 전개된다.

이렇듯 쌍둥이 자매나 남매는 같은 부모에게 한낱한시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개체적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남자 형제보다 자매나 남매 쌍둥이에게 ‘분리’의 과정을 줌으로써 개체적 삶을 강조하고 있다.

쌍둥이가 가문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역할을 중심으로 볼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계후·지속형 쌍둥이이다. 쌍둥이 형제는 두 명이 동시에 태어남으로써 계후로 입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국문장편소설에서 자손이 없거나 여자 자녀만 있는 경우 다른 형제의 자식을 계후로 맞아 가문을 잇는 경우는 흔하다. <엄씨효문청행록>의 엄백경은 자신의 둘째 아들 엄청을 큰형 엄백진의 계후로 보내게 된다. 엄백경의 둘째 형인 엄백현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지만 둘 다 이미 장성하여 혼인을 치른 상태였다. 어린 아들을 계후로 보내는 엄백경의 부인 장씨의 비통한 마음⁴¹⁾을 보아도 자식을 다른 형제의 계후로 보내는 일은 부모로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완월회맹연>의 정삼은 자신의 큰아들 정인성을 계후로 맞으려는 정삼의 견해에 신중할 것을 청한다. 대사를 미리 결정하였다가 타일 난연지사(赧然之事)가 있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⁴²⁾ 군자로 일컫는 정삼에게조차 계후 문제는 그만큼 신중한 것이었다.

반면 쌍둥이의 경우는 둘 이상의 아들이 존재함으로써 계후로 보내는

41) <엄씨효문청행록> 권1.

42) <완월회맹연> 권1. 44쪽.

설정에 부담을 줄이게 된다. <성현공숙렬기>의 임희린, <완월회맹연>의 정인웅, <명주보월빙>의 윤희천, <윤하정삼문취록>의 하몽성, 하몽관 등은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이 계후가 된 예이다.

<성현공숙렬기>의 임희린과 임세린은 임한규의 쌍둥이 아들이다. 그러나 장자이며 임한규의 형인 임한주는 아들이 없어 임한규의 쌍둥이 장자, 임희린을 계후로 맞는다. 임한주와 성씨부인 사이에 아들이 없다고 해도 동생 임한규에게 아들이 한 명밖에 없다면 쉽게 계후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들이 없는 경우 다른 형제의 자손을 계후로 맞을 때, 쌍둥이 형제는 계후로 보내고 맞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완월회맹연>에는 정잠은 양부인이 죽은 후 소교완을 재취로 얻고 정인중과 정인웅 쌍둥이 아들을 얻었고, 그중 정인웅을 사촌 형인 정흠의 계후로 보낸다. 정잠도 쌍둥이 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명주보월빙>의 윤광천과 윤희천은 윤현의 쌍둥이 아들로 차자 윤희천이 숙부인 윤수의 계후가 된다. 윤광천과 윤희천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윤수는 계후를 얻지 못할 상황이었다. 윤수는 부인 유씨 사이에 윤경아와 윤현이라는 두 딸을 두었으나 아들을 원하지 않았다. 윤수는 평소에도 형 윤현이 낳은 아들을 계후로 삼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 윤현이 금국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쌍둥이의 탄생은 윤수에게 계후를 얻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윤하정삼문취록>의 하몽성과 하몽린은 하원광의 쌍둥이 아들이다. 하원광에게는 억울하게 죽은 세 명의 형인 하원경, 하원보, 하원감이 있었다.⁴³⁾ 그로 인해 하원광은 장남 역할을 하게 된다. 하원광은 윤현아와의 사이에서 하몽성, 하몽린 쌍둥이 형제를 낳았고, 경씨 사이에서 하몽표와 하월강 쌍둥이 남매를 낳는다. 가문의 장남이 된 하원광은 죽은 세 명의

43) 하원광의 형의 죽음에 대해서는 <명주보월빙> 권3에 나온다.

형의 제사와 계후 역할을 할 아들이 필요한 상황이다.⁴⁴⁾ 이럴 때 쌍둥이는 그 부담을 덜기에 좋은 설정이 된다. 하몽성은 죽은 하원광의 큰형 하원경의 계후가 되어 제사는 물론 집안의 장자로서 가문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⁴⁵⁾ 죽은 백부의 계후가 된 하몽성과 하몽린 형제 사이에는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치유·회복형 쌍둥이이다. 죽은 자손이 환생하여 그 빈 자리를 채움으로써 남아있는 가문 구성원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는 경우이다. <명주보월빙>의 하원상과 하원창, <유이양문록>의 유세행과 유세운 형제, 최일벽과 최차벽 자매가 해당한다.

<명주보월빙>의 하원상과 하원창은 하진의 쌍둥이 아들로, 억울하게 죽은 하원경과 하원보가 환생한 경우이다. 이미 세 명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진의 꿈에 나타나 쌍둥이로 환생할 것을 예언한 바 있었다.⁴⁶⁾ 하진 부부는 억울하게 죽은 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아간다.⁴⁷⁾ 특히 부인 조씨는 가족들의 외출, 출전 등의 모든 행위에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낼 정도이다. 세 명의 아들의 죽음은 하진 집안의 분위기를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씨는 쌍둥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죽은 자식의 빈 자리를 채워 나간다.

44) <윤하정삼문취록> 권14. 2a, 2b. 하원광은 죽은 3명의 형을 위한 계후를 자신의 아들로 정하고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하원경과 임성옥의 계후로 장자인 하몽성을, 하원보의 계후로 3자인 하몽징을, 하원감을 위해서는 7자인 하몽현을 계후로 정하였다.

45) 이은경,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당호(堂號)의 양상과 서사적 기능」, 『고소설 연구』 52, 한국고소설학회, 2021.

46) <명주보월빙> 권4. 하진의 꿈에 죽은 3형제가 나타나 쌍둥이로 환생할 것이며 수년 후 다시 한 명이 더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다. 권11에서 하원상과 하원창 쌍둥이가 태어나고 이어 하원필이 태어나 죽은 3형제는 다시 환생한다.

47)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하진 집안의 죽은 아들에 대한 트라우마는 이은경의 논문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회혼’의 의미」, 『한국문학연구』 70,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22, 178~180쪽)에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유이양문록>의 유세행과 유세운은 유진의 쌍둥이 아들이다. 이 쌍둥이 형제도 억울하게 죽은 유춘과 유준 형제가 환생한 경우로 이들은 죽기 전 유진의 형제들이었다.⁴⁸⁾ <명주보월빙>의 쌍둥이 형제는 다시 형제지간으로 환생이 되지만 <유이양문록>의 경우는 자식으로 환생함으로써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 상이하다. <명주보월빙>의 경우 살아남은 막내 하원광이 장자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죽음으로 인해 비었던 형제의 수가 쌍둥이로 채워지는 반면 <유이양문록>의 유진은 죽은 형제가 쌍둥이 자식으로 환생함으로써 여전히 혼자서 부모를 봉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유진의 성격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다른 색깔로 치유받게 된다.

유세행과 유세운은 최일벽, 최차벽 쌍둥이 자매와 혼인을 하는데 최씨 자매도 또한 환생한 인물이다.⁴⁹⁾ 억울하게 죽은 유춘과 유준 형제의 부인이었던 남씨와 윤씨가 환생하여 다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동서지간이었던 두 여인은 쌍둥이 자매로 환생함으로써 유세행·유세운 형제와의 혼인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쌍둥이 형제와 쌍둥이 자매는 중표(中表 혼인⁵⁰⁾) 즉, 이종사촌 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이를 만큼 간절하고 애절한 것이었다. <명주보월빙>에서도 임몽옥은 하원경의 아내 임씨가 환생한 경우이다. 환생한 하원상과 다시 혼인을 하면서 끊어진 부부의

48) <유이양문록> 권4. “먼저 손아를 보니 일척(一尺) 옥을 꾸미며 민 듯한 옥동이 경히 혹스(學士)의 의형(儀形)이 도라 왔는디라. 경히 슬프고 반겨 여취여치(如醉如痴) 향야 현부 구홀 줄 썩듯지 못하더니.....부인니 두 으희를 그즉이 다시 보니 의형미목(儀形眉目)이 혼 판의 박은 듯 낭 혹스(兩學士)의 도라오미 반듯하디라 ”

49) <유이양문록> 권17. 유세운과 유세행 형제가 최옥의 두 딸인 최일벽과 최차벽을 보자 눈물을 흘리는 부분

50) <유이양문록> 권17. “그덕의 등표(中表) 혼인(婚姻)이 이시니 최후 낭(兩兒)의 쌍태(雙胎) 비상(非常)하고 상적(相敵) 하여 만일 비필(配匹)노 의논(議論) 하면 진실(眞實)노 텃당양필(天定良匹)이라. 비록 친척(親戚)의 일홈이 이시나 근본(根本) 인즉 남이니 등표(中表) 혼인(婚姻)이 비법(非法)이 아난가 하나니다.”

연을 이어감으로써 아픔을 치유해 나가지만 혼자의 경우와 쌍둥이 자매의 경우와는 비교가 된다. 또한 국문장편소설에는 쌍둥이 형제와 쌍둥이 자매가 혼인하는 경우⁵¹⁾가 많이 등장하는데 <유이양문록>의 쌍둥이 자매가 갖는 치유와 회복의 정서와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듯 환생한 쌍둥이는 살아남은 형제의 동생으로 혹은 자식이 되거나 부부가 되어 못다한 인연을 이어간다. 어떠한 형태든 죽었던 가문 구성원이 다시 채워짐으로써 가문 구성원들은 아픔을 견디는 데 힘이 된다. 두 작품 모두 억울하게 죽은 자손의 환생으로 쌍둥이를 이용함으로써 나이 차를 둔 형제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가족을 잃은 아픔과 그리움을 상쇄할 수 있었다. 유춘과 유준 형제, 하원경과 하원보는 두 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는 형제였지만 쌍둥이로 환생하면서 다시 만나는 시간 차를 줄일 수 있었다.

3. 국문장편소설에 내재한 쌍둥이의 의미

<옥주호연>, <목시룡전>, <정진사전> 등의 단편에도 쌍둥이가 등장한다. 그러나 한 작품에 여러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으며 가문의식이 두드러진 사대부층의 쌍둥이에 대한 인식을 확연히 보여주는 어렵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는 세금을 내는 백성으로서의 쌍둥이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지배층으로서의 사대부들이 인식하는 쌍둥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부층을 주 독자로 갖는 국문장편소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51) <유선쌍학록>의 소학신·소학인 쌍둥이 형제와 하벽강·하벽파 쌍둥이 자매, <명주보월명>, <윤하정삼문취록>의 정옥기·정완기 형제와 화금벽·화은벽 자매, 윤춘린·윤숙린 형제와 화천도·화화도 자매, 윤성현·윤명현 형제와 문홍란·문옥란 자매, <임씨삼대록>의 임선홍 형제와 박몽계·박몽화 자매 등 다수가 등장한다.

문집 자료를 보면 많은 양은 아니어도 사대부 가문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고 형제가 모두 관직에 나간 경우도 있다. “뜻밖에도 이처럼 쇠퇴한 말세에 / 居然衰末俗, 덕망 높은 군자의 법도를 보았다고 / 得見老成刑, 상서로운 동물로 기린과 봉황 꼽으니 / 瑞物歸麟鳳, 빛나는 그 이름 형제가 나란했다고 / 華譽並鶴鶴.....”⁵²⁾ 민백겸(閔百兼, 1719~1747)과 쌍둥이 형 민백침(閔百瞻, 1719~1750)이 각각 1744년(영조20) 진사시와 1741년(영조17)의 생원시에 합격한 것을 칭찬하는 시이다. 대사헌을 지낸 민우수의 쌍둥이 아들에 대한 찬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쌍둥이 형제에 관련된 자세한 삶의 양상을 알 수 없어도 주변의 관심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숙종은 고성부정 이석의 쌍둥이 아들, 화평부령 이발과 화은부령 이양이 직책을 받아 편전에 불러보고 술과 문방사우를 선물하였다. 당시 쌍둥이가 드물었기 때문이었다.⁵³⁾

이에 사대부층이 사대부층 쌍둥이를 바라보는 시선 혹은 인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흔하지 않기에 18~19세기 유행했던 국문장편소설을 통해 유추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쌍둥이는 형제, 자매, 남매 등 성별의 차이는 물론 적서 등의 신분적 차이를 갖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양상도 다양하였다.

첫째, 쌍둥이 모티프는 같음과 다름의 복합적 사고를 보여준다. 국문장편소설은 쌍둥이 형제의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는 복합적이고 융통적인 사고를 지닌다. 명리학에서는 쌍둥이의 삶이 다른 이유를 서로 태어난 시간의 차이로 보고 있다.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나는 순서가 있어서 길흉이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⁵⁴⁾ 이는 같으면서도 다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52) 『삼산재집』 제1권.

53) 『열성어제』 12권, [花平副令機 花恩副令 卽高城副正之子也 癸巳春以年滿十五授職 一母所生同年 則明是雙生 故肅恩翼日 便殿召見賜酒 又賜紙筆墨 蓋雙生稀有 故召而見之也]

쌍둥이는 조선 시대에도 흔하지 않은 현상이다. 외모의 같음 혹은 유사함으로 인한 소재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모티프임에도 불구하고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창선감의록>의 윤여옥, 윤옥화 남매의 외모가 유사하거나 <명주기봉>에서 사마영주를 사마예주로 착각하는 예를 제외하고는 외모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이야기 전개는 찾기 어렵다. 이는 쌍둥이 형제를 각각 독립된 인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쌍둥이들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살해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⁵⁴⁾ 쌍둥이는 밤과 낮이며 하늘과 땅, 선과 악 등의 대립적 이원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국문장편소설의 쌍둥이는 같은 자궁에서 인고의 시간을 함께 나누며 부모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같음의 상징이면서 각기 다른 사고와 자질을 지닌 독립체임을 말하고 있다.

한국 설화에서 쌍둥이는 선과 악이라는 대립에 의해서 신성성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신성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반대적인 기괴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의 대상을 신성하게 여기는 만큼 그 반대로 기괴하는 마음 역시 강하게 나타난다.⁵⁵⁾ 국문장편소설에서 쌍둥이의 대립적 관계는 고대 신화의 극단적 이원적 사고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협력·상보형 쌍둥이’에서 보듯 쌍둥이라도 개체적 삶을 추구하는 다름이 존재한다. <현몽쌍룡기>의 조무와 조성 형제나 <명주보월빙>의 윤광천과 윤희천 형제처럼 대등하면서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는 사고를 읽을 수 있다. <성현공숙렬기>의 임희린과 임세린 형제는 같은 부모에게서 한

54) 이홍신, 「쌍둥이 사주의 명리학적 간명(看命)에 관한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6쪽.

55) 이경덕, 『신화로 보는 악과 악마』, 동연, 1999, 38쪽.

56) 김자현(2007), 앞의 논문, 138쪽.

날 태어난 사이지만 임희린은 임한주의 종통으로, 임세린은 임한규의 장자로 자란다. 두 형제는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서로에게 충고를 주는 등 돈독한 우애를 지니면서도 각자의 삶을 추구하는 다름을 보인다. 그 다름은 개인적 삶의 다름보다는 가문을 유지하고 번성시키는 큰 힘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국문장편소설의 쌍둥이를 통해 드러내는 같음과 다름은 단순히 대립적 관계를 초월한다. “본래 둘이 있어야 전체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둘로 분화하여 나타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그 잃어버린 전체성을 추구하는 한 쌍의 인물”⁵⁷⁾인 짝패를 넘어 독립적으로 완성된 다름이 새로운 조화로 같음을 만들고, 유전적 같음의 관계가 새로운 세상을 다양하게 살아가는 다름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쌍둥이는 일반적 형제이야기보다 가문의 정체성 확립과 변영을 향한 의지의 극대화를 강하게 보여준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문장편소설의 쌍둥이 형제는 심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힘을 합해 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을 보인다. 아무리 지독한 갈등을 겪는다고 해도 쌍둥이 형제는 결국 다시 결합함으로써 전보다 더 완벽한 완결체를 이룬다. 같은 가문의식을 추구하고, 같은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이 마치 외모가 같은 쌍둥이 형제 같아 보인다.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분열과 불안한 심리는 쌍둥이 형제의 단합과 조화의 모습을 통해 가문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 당시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소재였던 쌍둥이를 모티프로 하여 독자로 하여금 가문의 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무겁지 않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윤하정삼문취록>의 하원광은 부인 윤현아와 경씨에게서 각각 하몽성

57) 이강엽, 「고소설의 '짝패' 인물 연구」,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337쪽.

과 하몽린, 하몽관과 하몽수 등의 쌍둥이 형제를 두었다. 하원광은 위로 세 명의 형을 잃은 막내로 장자의 위치에서 가문을 이끌어 왔다. 장자 하몽성과 다른 두 아들을 망형(亡兄)들의 계후로서 제사공양을 받들게 하기 위해 많은 자손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서술자는 하몽성에게 가장 많은 부인을 두게 함으로써 하부(府)의 번성에 힘을 쏟는다.⁵⁸⁾

<유이양문록>의 유세행, 유세운 형제도 억울하게 죽은 유춘과 유준 형제가 환생한 쌍둥이다. 유잠의 6자(2녀⁵⁹⁾) 중 유진(3자)과 유필염을 제외한 6명의 자녀가 한왕에 의해 참혹한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죽은 4명의 아들은 유진의 아들로 차례대로 환생한다. 유세행(유춘)과 유세운(유준)은 쌍둥이로, 유세경(아들5), 유세환(아들6)은 그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환생한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4명이 순차적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쌍둥이로 설정할 때 시간의 단축으로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슬픔을 상쇄하기에 적합하다. 유세행과 유세운은 유진이 다져놓은 가문을 유지하면서 유부(府)를 번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⁶⁰⁾

쌍둥이 형제는 가문의 횡적 종적 관계의 계후로 입적할 때 그 부담감을 줄임으로써 가문 확장에 기여한다. 대부분 형제간에 계후로 입적되지만 <완월회맹연>의 정인웅처럼 오촌 당숙의 계후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쌍둥이는 계후가 됨으로써 큰 범위의 가문 번성에 기여한다.

<쌍성봉효록>의 임성인, 임성현 형제는 어려서부터 항상 함께 집안의 위기는 물론 국가의 위기도 힘을 합해 극복해 나간다. <유선쌍학록>의 소

58) 하몽성은 <윤하정삼문취록>에 등장하는 남성 인물 중 가장 많은 부인을 둔다.(이은경(2021), 앞의 논문, 155~157쪽, 윤·하·정 삼문의 당호 표를 참고)

59) 유잠은 부인 이씨에게 아들 유영, 박씨에게서 아들 유춘과 유준, 유진, 그리고 이름이 제시되지 않은 아들 2 모두 6명을 두었다. 유영은 일찍 죽어서 유진을 제외한 환생할 아들은 4명이다.

60) 공혜란,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환생 연구-혼인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8~39쪽.

학선, 소학인 형제는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적자 이복형이 있음에도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고 형들을 개과하도록 이끈다. 가문의 위기가 닥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쌍둥이는 두 배 이상의 힘을 발휘하면서 조선 후기 가문 번성에 대한 의지를 극대화한다.

또한 쌍둥이 형제는 가문의 정신을 상기시키고 가문의 정체성을 확장한다. <윤하정삼문취록>의 윤성현과 윤명현 형제는 당시 신분이 낮은 화벽(엄월해)에게서 태어나지만 그 모습에서 윤현을 연상하게 한다.⁶¹⁾ 윤현은 선작(先作) <명주보월빙>에서부터 윤부를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이다.⁶²⁾ 윤부의 가족들은 윤희천의 장자 윤창린에게서 조부 윤현의 모습을 읽으며 ‘높은 격조와 맑은 충의’를 닮은 것을 아름답게 여긴다. 윤현-윤광천-윤성린으로 이어지는 윤부의 종통이 있음에도 윤수-윤희천(계후)-윤창린-윤상현, 윤명현으로 이어지는 횡적 가문에도 윤현의 정신을 이입시킨다. 윤광천과 윤희천 쌍둥이 형제에게 보였던 윤현의 모습(정신)은 다시 윤상현과 윤명현 형제에게 드러나며 가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⁶³⁾

별렬 가문으로 성장한 후의 쌍둥이 형제들은 가문 번영의 상징으로 기호화된다. 구체적 서사가 진행되지 않고 이름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한 명의 자손보다 번성한 가문을 드러내는데 용이하다.⁶⁴⁾ 쌍둥이 자손

61) <윤하정삼문취록> 권34.

62) 김은일·이은경, 『국문장편소설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위한 세계관 구축 연구-〈명주보월빙〉 연작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2,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203쪽.

63) 윤부의 정신적 중심은 ‘충효의 실현’이다.(유인선, 「〈명주보월빙〉 연작 연구-윤명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24~31쪽.)

64) <윤하정삼문취록>으로 윤영린의 아내 두씨가 쌍둥이를 낳았더라는 표현만 나온다. 윤창린의 아들 윤성현과 윤명현 쌍둥이 형제는 문계원의 쌍둥이 자매인 문홍란과 문옥란과 혼인한다. 쌍둥이 간 혼인은 정인홍의 아들 정옥기와 정완기 쌍둥이 형제에게도 이루어지는데 화금오의 쌍둥이 자매 화금벽과 화은백과 혼인한다. 정필홍에게도 정진기와 정세기 쌍둥이 아들이 있고, 하원광에게는 하몽상, 하몽린 쌍둥이 아들 외에도 하몽표, 하원길 쌍둥이 남매가 있다. 윤희천의 윤춘린, 윤숙린 쌍둥이 아들은

에 대한 구체적인 서사를 제공하지 않지만 기존의 쌍둥이 형제의 서사에 힘입어 다채로운 서사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⁶⁵⁾

셋째, 쌍둥이를 통해 가부장제 정착을 위한 수직적 질서의 내면화를 보여준다. 조재삼의 <송남잡지>⁶⁶⁾에는 쌍둥이 형제의 선후 관계에 대한 대립적 견해가 나온다. <춘추공양전>에는 “늦게 태어난 아이를 형으로 삼았다.”고 했으며 <서경잡지>에는 “먼저 태어난 아이를 형으로 삼아야겠다.”라는 내용이다. 쌍둥이는 짧은 시간 차를 두고 태어나지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선후 즉, 수직적 관계에 놓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쌍둥이는 간만의 차이로 태어나 형이 되고 아우가 된 경우이기에 시간 차를 둔 형제와는 독자들에게 다른 느낌을 주게 된다.⁶⁷⁾

특히 쌍둥이 형제에게 동복이든 이복이든 쌍둥이 이외에 다른 형제가 없는 경우 서사는 더욱 극적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⁶⁸⁾ <명주보월빙>의 윤광천과 윤희천 쌍둥이 형제는 누나 윤명아만 있는 상태에서 유복자로 태어나 더 이상의 형제를 얻을 수 없었다. 심지어 윤희천은 숙부 윤수의

화창흙의 쌍둥이 딸인 화천도, 화화도와 혼인한다. <완월회맹연>의 정인광과 장성완 사이에도 남녀 쌍둥이인 정혜주와 정몽천을 두었고, 뒤이어 정몽연과 정몽냥 아들 쌍둥이를 낳는다.

65) <윤하정삼문취록> 권83. 정인홍의 정세기와 정진기 쌍둥이 아들을 포함한 자손 이야기는 <명월기합록>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이 작품은 찾을 수 없다.

66) 조재삼(강민구 옮김), 『교감국역 송남잡지』 2, 소명출판, 2008, 238~239쪽.

67) “작가들이 쌍둥이를 드라마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극적인 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 한낱 한시에 태어났지만 다른 인생을 사는 쌍둥이는 그 자체가 드라마틱한 요소를 갖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 - 강수진기자, 동아일보, 2000, 6. 26 자.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20/0000012924>

최수현(2014, 앞의 논문, 215쪽)은 ‘같은 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같은 공간에서 자라는 쌍둥이가 빚어내는 갈등은 가족 내부의 문제를 폭로하기에 적합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68) 이 경우 남자 형제 쌍둥이를 말한다. 남매 쌍둥이의 경우는 다른 형제가 많은 경우에도 등장한다. 그러나 남매 쌍둥이의 경우 대립적 서사를 이루지 않고 있다.

계후가 되어 윤광천과 각자 그리고 함께, 붕괴되어 가는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공동의 운명을 갖게 된다. <현몽쌍룡기>의 조무와 조성 형제도 누나 조숙혜, 주혜, 필혜 다음에 태어났으며 어머니 위부인은 노산으로 쌍둥이 형제를 낳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없을뿐더러 더 이상의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태이다. 심지어 아버지 조숙은 화씨, 영씨, 설씨를 첩으로 두었으나 채빙, 옥빙, 계빙 등의 딸만 얻는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형제가 없는 조무와 조성, 윤광천과 윤희천 쌍둥이 형제는 영웅형 인물과 군자형 인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구성하여 서사를 전개하게 된다. 그러므로 두 형제 사이에는 갈등 양상보다 협력의 서사가 주를 이루며 부부 갈등이나 처남과의 갈등, 양모와의 갈등 등 다른 유형의 갈등이 독자의 관심을 끌게 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여러 형제가 아닌 오로지 두 쌍둥이 형제의 행보에 집중하게 된다. 삼문록계 소설 <명주보월빙>처럼 복잡다층적 인물들 사이에서 쌍둥이는 서사의 집중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완월회맹연>의 정인웅과 정인중도 엄격한 아버지 정삼과 어머니 소교완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형제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⁶⁹⁾ 쌍둥이 형제는 선인과 악인의 대립적 관계로 서사가 전개됨으로써 갈등은 더욱 극대화된다.

이렇듯 국문장편소설의 쌍둥이 형제는 갈등을 유발하던 우애를 강조하던 어떠한 사건도 일으킬 수 있는 형제가 없다는 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한낱한시에 태어난 형제는 작은 차이로 장자가 되고 아우가 된다. 그로 인해 장자는 종통이라는 권력과 부를 얻게 된다. 시간상의 큰 차이가 없는 수평적 관계의 형제라도 당시 선후 차이를 갖는 수직적 질서⁷⁰⁾ 속에 순응

69) 소교완은 이야기의 결말부(권 175)에 와서 아들 정인석을 낳는다. 정인중과 정인웅, 정인중과 정인성의 갈등이 종결된 뒤이다.

70) 윤양집 제13권, 취당공 김만식은 “셋째형 심연공(心研公)과 쌍둥이로 반 시진 뒤에 태어났으므로 공의 서열이 네 번째가 되었다.”

해야 하는 부조화는 두 형제간의 갈등이 더 극적이고 밀도 있는 서사를 이루게 된다. 이는 17세기 이후 가부장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사대부층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조선 후기에 시간 차를 둔 형제의 위계질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국문장편소설의 쌍둥이라는 특이한 조건, 극적인 조건에서도 이 질서는 흐트러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문장편소설의 쌍둥이는 사대부층의 수직적 질서를 내면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겠다.

4. 결론

한국 역사에는 쌍둥이가 둘을 넘어 셋, 넷, 다섯 명까지 있다는 기록이 있다. 심지어 서로 다른 몸통이 분리되지 않은 채 태어난 삼쌍둥이도 보인다. 다태아가 태어나면 곡식을 내렸는데 “생명 탄생에 대한 축하, 출산의 노고에 대한 위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하기를 바라는 부조의 성격”⁷¹⁾을 갖고 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찾을 수 있는데 세, 네쌍둥이가 많은 편이며 곡식을 내려 축하하였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쌍둥이는 관심을 끌 만한 모티프로 소설에서의 차용은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설 속에 남녀 세쌍둥이가 등장하는 <옥주호연>은 물론이고 남매 쌍둥이가 등장하는 <정진사전>, <남강월전>, <쌍련몽>, <최보운전> 등도 흥미롭다. 실제 역사 인물이 등장하는 <목시룡전>도 쌍둥이 형제 이야기이다. 심지어 한문소설 <난학몽>은 짧지 않은 분량의 작품으로 한난선과 한학선 남매 쌍둥이가 중심인물로서 서사를 이끌어 나간다.

또한 국문장편소설 곳곳에도 쌍둥이 형제가 등장하고 있다. 남자 형제는

71) 최일례, 「한국 고대의 특이한 출산 사례와 당대의 반응-다태아와 삼쌍둥이 출산 사례를 중심으로」, 『감성연구』 19,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9.

물론 자매 그리고 남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쌍둥이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심인물은 물론 이름도 제시하지 않은 인물도 있고, 사대부는 물론 시비에 이르기까지 성별, 계층, 중요 여부 등 많은 쌍둥이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대중문화에도 많이 소환되는 쌍둥이가 조선 후기 사대부를 독자층으로 갖고 국문장편소설에 어떤 유형으로 작품화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삼대륙계 소설 <현몽쌍룡기>, <성현공숙렬기>, <임씨삼대륙>, 양문륙계 소설 <유이양문록>, 삼문륙계 소설 <명주보월빙>과 <윤하정삼문취록>, <엄씨효문청행록> 그리고 <완월희맹연>, <명주기봉>, <쌍성봉효록>, <유선쌍학록>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문장편소설에서 쌍둥이는 서사의 중심을 이룰 만큼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많은 작품에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른 다른 삶을 살기도 하며 아픔과 트라우마를 겪는 가족을 치유하는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쌍둥이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설화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수직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조선 시대지만 쌍둥이를 등장시킴으로써 같음과 다름을 넘어 융합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음은 물론 가문 번성의 의지와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식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쌍둥이에 대한 관심은 현재에도 여전하다. 드라마, 영화, 웹소설, 웹툰 등 다양한 매체장르에서도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 그만큼 문화적 상품 가치가 있는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국문장편소설에는 다양한 유형과 많은 인물의 쌍둥이가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성과 특징이 강하다. 이는 현대 문화콘텐츠의 원형으로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분량이 방대한 국문장편소설의 쌍둥이 형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였기에 각 작품의 세밀한 검토는 물론 신분적, 성별적 차이를 구체적

으로 드러내지 못하였다. 추후 유형별 혹은 개별적 쌍둥이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명주기봉>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DB.
<명주보월빙> 1-10. 고려서림, 1986.
『명주보월빙 교감본』 1-5, 최길용, 김영숙, 학고방, 2014.
<윤하정삼문취록>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간, 한국고대소설대계2, 1981~1982.
『윤하정삼문취록 교감본』 1-5, 최길용, 학고방, 2015.
<엄씨효문청행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DB.
<유이양문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DB.
『완월희맹연』 김진세독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1994.
<성현공숙렬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DB.
<쌍성봉효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현몽쌍룡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DB.
<유선쌍학록> 이화여대 소장본.
<임씨삼대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DB.
- 강우규, 「<유효공선행록> 쌍둥이 형제갈등의 양상과 의미 고찰」, 『우리문학연구』 64, 우리문화회, 2019, 63~86쪽.
- 곽정식, 『한국 설화에 나타난 형제간 갈등의 양상과 그 의미』, 『문화전통논집』 4,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6, 21~36쪽.
- 공혜란,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환생 연구-혼인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106쪽.
- 권복순,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합방본풀이>의 인물의 기능과 그 의미」, 『어문학』 116, 한국어문화회, 2012, 185~209쪽.
- 김영일, 「한국창세신화의 비교-<천지왕본풀이>와 북미 인디언의 ‘쌍둥이’영웅 신화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10,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65~86쪽.
- _____, 「‘제석본풀이’와 나바호의 ‘쌍둥이’ 영웅담」, 『한국무속과 신화의 연구』, 세종출판사, 2005, 1~477쪽.
- 김승찬, 「기장지방의 금기 속신」, 『한국민족문화』 8, 부산대학교 한국민속문화연구소, 1996, 387~420쪽.
- 김은일, 「국문장편소설의 서사 확장 원리의 한 면모-<명주보월빙> 연작의 캐릭터 설정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95, 민족어문화회, 2022, 217

~258쪽.

- 김은일·이은경, 「국문장편소설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위한 세계관 구축 연구-〈명주보월빙〉 연작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2,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191~226쪽.
- 김자현, 「쌍둥이설화 연구」, 『남도민속연구』 14, 남도민속학회, 2007, 123~145쪽.
- 박상화·임달오, 「우리나라 쌍둥이 발생 분포에 관한 연구, 1991-2018」,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4, 2019, 427~431쪽.
- 박종성, 「구비전승 <삼태성>과 <북두칠성>신화 일고-무속신화와 전국신화의 상관성 및 신앙의 양상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217~251쪽.
- 박태균, 「박태균의 건강칼럼-쌍둥이의 비밀」, 『건강소식』 31(9), 한국건강관리협회, 2007, 22~23쪽.
- 배수현, 「〈유선쌍학록〉의 갈등 양상과 인물형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87쪽.
- 손기광, 「〈유선쌍학록〉의 이중성과 사회의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134쪽.
- 양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전통적 가족윤리의 제 문제」,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253~292쪽.
- 유인선, 「〈명주보월빙〉연작의 친동기간 갈등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문학』 60, 한국고전문학회, 2021, 217~248쪽.
- _____, 「〈명주보월빙〉 연작 연구-운명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231쪽.
- 이강영, 「고소설의 ‘짜페’ 인물 연구」,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333~361쪽.
- 이경덕, 『신화로 보는 악과 악마』, 동연, 1999, 1~289쪽.
- 이수자, 「제주도 큰갯내의 신화에 나타난 가족구성상의 특징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 231~256쪽.
- 이은경,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당호(堂號)의 양상과 서사적 기능」, 『고소설연구』 52, 한국고소설학회, 2021, 149~181쪽.
- _____,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회혼’의 의미」, 『한국문학연구』 70,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22, 163~200쪽.
- 이지하, 「대하소설 속 친동기간 선악 구도와 그 의미」, 『한국문화』 64,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339~361쪽.

- 이현주, 「<완월회맹연>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88쪽.
- 이흥신, 「쌍둥이 사주의 명리학적 간명(看命)에 관한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155쪽.
- 장영란, 「쌍둥이 자녀의 양육문제와 그 극복의 방안」, 『신학과 실천』 49, 한국실천신학회, 2016, 555~576쪽.
- 장혜영, 「희곡 작품들 속에 나타나는 쌍둥이 이야기의 여러 가지 변용」, 『불어불문학연구』 50, 한국불어불문학회, 2002.
- 정선희, 「윤여옥의 활약을 중심으로 살핀 <창선감의록>의 주제 구현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3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175~208쪽.
- 정혜경, 「유효공선행록의 담론과 문제의식」, 『우리문학연구』 44, 우리문학회, 2014, 287~324쪽.
- 조광국, 「<창선감의록>의 적장자 콤플렉스」, 『고전문학과 교육』 38, 한국고전문학회, 2018, 65~101쪽.
- 조재삼, (강민구 옮김), 『교감국역 송남잡지』 2, 소명출판, 2008, 1~570쪽.
- 조춘호, 「고소설에 나타난 형제간의 갈등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 18, 국어교육학회, 1986, 35~58쪽.
- 조혜란, 「악행의 서사화 방식과 진지성의 문제-〈현몽쌍룡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59~398쪽.
- 최수현, 「<명주기봉>에 나타난 자매갈등의 형상과 그 의미」, 『어문연구』 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207~235쪽.
- 차용주, 「고소설의 갈등 양상에 대한 고찰- 형제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3, 63~81쪽.
- 최일례, 「한국 고대의 특이한 출산 사례와 당대의 반응-다태아와 삼쌍둥이 출산 사례를 중심으로」, 『감성연구』 19,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9, 119~144쪽.
- 최혜원, 「성인 쌍둥이의 성장과정에서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동서정신과학』 21(1), 한국동서정신과학회, 2018, 17~47쪽.
- 탁원정, 「가문 내 ‘불우한 당사’의 계보와 그 변주」, 『고전문학연구』 54, 한국고전문학회, 2018, 219~246쪽.

ABSTRACT

A Study on the Patterns and Meaning of Twins
in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Lee, Eun-kyeong

This study focuses on how twins, who are currently often appeared to popular culture, have been produced in the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and what they me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 the perceptions of the nobleman about twins born on the same day and living various lives.

Focusing on the role of the twins in the relationship of many characters in the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the aspects were divided into the sides of the twins and the sides of the family. In terms of twins, the first is confrontation and conflict-type twins, which cause conflict between twins or other brothers due to twins. Second, a case of cooperative and complementary twins that join forces with each other to protect the country, or family from the enemies, or to overcome crisis. Third, independent and individual twins, who live individual lives because of different appearances and personalities, or because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grew up is different. Each lives their own lives because they are not significantly affecting each other's lives or because of separation. In terms of the family, the first is a case of the twin who registered as the descendant of the family relatively reduces the burden of the succession problem and continues the family. Second, it is a case of healing and recovery twins who heal pain and trauma by filling the void of the family.

In the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which has the nobleman as its main readers, twins have the following meanings. First, in the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twins are recognized not only as symbols of the same nature that share the same genes but also as independents with

different thoughts and qualities. It can be said that twins are not viewed in a dichotomy but are perceived complexly. Second, by featuring many twins in the Korean novel, it is well revealed not only the establishment of the family's identity but also the will to prosper. Twins are symbols of family prosperity and also responsible for filling the fastest-dead family members. Third, the twins in the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try to solidify the vertical order of patriarchy through twins who do not differ significantly in time. In other words, the Confucian order can be more emphasized through a narrative of twins who significantly change their position in the family than the other brothers.

Key Words twins, on the same day and time, same and difference,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horizontal sibling relationship, vertical order, family prosperity

논문투고일: 2025.01.22. 심사완료일: 2025.02.10. 게재확정일: 2025.02.11.
--